

AI예방통제센터

글 : AI예방통제센터 강덕호
(발췌 : 농림축산검역본부 아람드리 2015 여름호)

AI예방통제센터 신설 배경

2003.12.10.~2011.5.16.까지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그간 발생 지속 기간이 최장 140일을 넘지 않았으나, 2014.1.16. 전북 고창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같은 해 7.25. 발생을 끝으로 주춤하더니 9.24. 전남 영암에서 재발생 후 2015년 1월말까지 1년 이상 발생이 지속되어 국내 가금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23.에는 구제역 첫 발생(예방접종 정책 실시 후)이 보고되더니 12.3.부터는 본격적인 추가 발생이 이루어져 질병관리와 역학조사과에서는 국가 재난형 질병인 구제역과 AI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전담인력 부족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 및 AI의 초동방역 대응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AI예방통제센터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탄력을 받아 그 신설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내외부적으로 AI 전담조직 확보를 통한 AI 방역업무 일원화로 AI를 조기종식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어 AI 사전방지 및 조기종식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2015.2.26.(목) 2년간 한시조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I예방통제센터 조직은 당초 검역본부가 요구한 진단업무가 포함된 4개과(방역과 21, 역학예측과 20, 분석과 19, 연구개발과 15) 신설과는 달리 1개과 13명의 축소된 작은 조직으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I예방통제센터 임무

AI예방통제센터는 신설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그 신설 취지에 맞게 AI 사

전 예방 중심의 방역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 치료채취 검사 및 국내외 예찰정보 수집 · 분석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교육 · 홍보 및 제도 운영
-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교육 · 훈련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 수집 · 분석 및 역학조사 · 역학기법 개발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법 위반사범 조사 · 단속 등 수사업무
- 조류인플루엔자 감시 및 국내외 협력

그간 AI 방역 업무는 역학조사 결과가 현장 방역 조치와의 즉각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AI예방통제센터는 역학조사 업무와 방역조치 업무의 일원화로 선제적 방역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학조사는 검역본부 AI 전문 인력풀을 구성 ·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AI예방통제센터 2015년 업무 추진 방향

AI예방통제센터는 2015.4.30.(목) 검역본부에서 개최된 축산전문 기자단 설명회에서 AI 사전 예방이라는 목표아래 2015년 업무추진 방향 등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업무 수행
-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관리

- 지자체와 민간기관 협력 강화
- 농가 및 축산관계자 방역의식 제고

첫째,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 ① AI 전파의 주요 요인인 철새 이동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한 국가간 정보 공유 및 러시아 등 철새 서식지 공동 연구로 사전 정보 확보 추진
- ② AI 발생 이력 지역 및 해당지역의 예찰 결과 분석을 통해 계절별 · 지역별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 예측하여 선제적 예방대책 수립
- ③ 전국 종오리 및 육용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입식 전, 폐사체 및 출하 전 3단계 검사를 통해 사전 검출 강화로 AI 조기 검색 시스템 구축
- ④ 전통시장, 중간 상인 계류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판매 시설, 소규모 토종닭 사육농가 방역관리 및 가금운반차량(운전자) 소독조치와 해당 차량의 GPS 등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서는

- ① 발생지역의 사육환경, 지리적 여건, 농가 차단 방역 능력 및 전파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방역관리 대책 수립 · 시행
- ② 신속한 역학조사 분석으로 발생지역 AI 확산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
- ③ 가축 재입식 절차 강화
 - ㉠ AI H5, H7 항체양성 농가를 입식 시험 대상으로 추가
 - ㉡ 가축 재입식 대상 농가의 입식 시험전 분뇨 등 오염물질 제거, 축사 청소 · 세척 · 소독 등 방역조치 적정 여부 등 점검 강화(시 · 도에서는 농가 1차 점검후 점검 결과를 검역본



2015.4.30. A예방통제센터 현판식

부로 통보하고 검역본부에서 시·도의 점검 결과에 대해 2차 확인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시험 진행 조치)

- ㉔ 관리지역 비발생 농가도 입식전 환경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오리사육 농가는 입식전 환경시료에 대하여 AI 검사 의무화
- ④ AI 발생농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 ㉕ 농장내 가축분뇨 처리, 잔존 오염물의 제거 등 점검을 강화하고
 - ㉖ AI 매몰지 점검 정례화로 AI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자체 및 협회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 ① AI 방역 취약지구인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소규모 농가, 유통상인 등에 대하여 민관합동(검역본부·지자체·협회) 감시단 구축을 통해 유통상인 등록, 운반차량 소독 및 GPS 등록·장착, 이동승인서 소지 여부 등 방역 지도 점검 및 관리·감시 강화
- ② 밀집사육 지역은 AI 발생시 주변으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와 초동방역 공동 대응 및 전파 위험요소의 신속 분석을 통해 선제적 방역조치 방안 제시

- ③ 발생지역 특성 등 현장상황과 역학조사 결과 정보 상호공유로 효율적 방역조치 시행 및 지자체·협회 등과 협의회 또는 간담회 정례화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가 및 축산 관계자 방역의식 제고를 위하여

- ①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강사(정부+민간) 인력풀을 구성하여 축산농가 및 지자체 방역 담당자에게 맞춤형 방문교육 실시
- ② 국내 AI 발생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H5N8형 바이러스의 특징, 농가 차단방역 요령, 가축 재입식 절차 등 세부 항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축산농가들이 스마트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선택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을 시청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예방통제센터 향후 전망

AI예방통제센터는 2.26. 출범 후 AI 상시예찰 기준 강화로 AI 조기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고, AI 발생농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 재입식 관련 SOP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충북 음성, 전북 김제 용지 등 밀집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로 타 시군으로의 전파 방지 및 해당지역 AI를 조기종식하는 등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AI예방통제센터는 출범 후 그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한시

조직이 아닌 향후 우리나라 AI 방역업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예방통제센터는 AI 사전예방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 AI 청정국 지위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전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농식품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협회 등의 긴밀한 업무 공조를 이끌어내고, 가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오리도토리묵무침